

강원영상위, 나노독성학자와 함께 하는 미세먼지 주제 ‘찾아가는 영화토크’ 개최

- 미세먼지 소재 프랑스 재난영화 <인더더스트> 상영 및 토크 행사 진행
- 도민 대상으로 극장 미개봉작 선정, 나노독성학 연구자 초청으로 특별 자리 마련
- 오는 3월 29일(금) 저녁 7시 남춘천 메가박스 2관, 참가자 사전 모집 중

□ 강원영상위원회(위원장 방은진)는 오는 29일 남춘천 메가박스에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영화토크’ (이하 영화토크)를 개최한다.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일환으로 도내 지역민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이번 영화토크는 담론 형성을 위하여 최근 사회 이슈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과 함께 초청 게스트와 관객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 최근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표되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영화토크의 부제를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어쩌면 우리 이야기’로 짓고 미세먼지 소재 재난영화인 <인더더스트>(2018)를 상영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영화 <인더더스트>는 국내에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프랑스 영화로 제22회 판타지아 영화제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다니엘 로비 감독의 연출작이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 지진으로 발생한 초거대 미세먼지가 차오르는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를 줄거리로 한다.

□ 이번 영화토크에서는 영화저널니스트 김형석, 나노독성학 연구학자 박은정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융합건강과학과)가 참석해 관객의 궁금증과 의문점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은정 교수는 일상 속 나노 물질의 독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2016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세계 1% 연구자로 유명하다.

□ 참가 신청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입란을 작성하면 된다. 도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28일 개별 공지한다.

□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영화토크는 영상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취지로 기획해 온 만큼 도내에 자발적인 영화관람 문화 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올해 영화토크는 도민 분들이 관심 갖도록 최근 사회적, 계절적 이슈와 접목된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찾아가는 영화토크’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wfil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기획사업팀(033-240-1379)을 통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정민서 사원(☎033)240-13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찾아가는 영화관

1st 영화토크

-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어쩌면 우리 이야기 -



3. 29. 금
저녁 7시
남춘천
메가박스 2관

모더레이터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초청게스트

박은정 교수
나노독성학 연구자

초거대 미세먼지로 뒤 덮힌 파리의 모습
시도때도 없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우리 현실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방법

gwfilm.kr > GFC 행사신청 > 찾아가는 영화토크 >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19.3.27.수 / 참가자 발표: 2019.3.28.목

참여문의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033-240-1379